

가톨릭마산

교구장 사목표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4 팩스 055)249-711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cathms.or.kr
주소 (51727)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제2289호 2018.1.21. 연중 제3주일

강론

연중 제3주일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면 아무리 밋상을 떨어도 좋게 보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호감을 갖거나 좋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매사가 다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잘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똑같은 행동을 두고도 달리 봅니다.

이런 눈目の 차이, 시각의 차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자신의 행동거지(行動舉止)에 대해 조심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끔씩 생각이 나도 불편하기만 합니다.

회개란 것도 하느님에 대해 평소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두었는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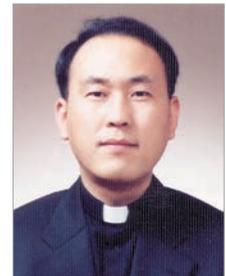
'낮선 하느님'인 한에는 그분의 말씀도 항상 서먹서 먹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내 하느님'인 경우에는 갓난아이의 울음을 듣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는

엄마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내가 무얼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런 하느님, 낯선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으로 다가올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정중하고 정성스럽게 대하게 마련입니다.

때론 너무나 낯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새롭게 만나는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송재훈 라파엘 신부 | 교현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제1독서 요나 3,1-5,10
- 화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제2독서 1코린 7,29-3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음 마르 1,14-20
-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2~3면 2018 교구 사제 서품식 및 새 사제 인사
6면 사제의 한마디

나의 이야기를 담은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의 사건, 다양한 이유들

<1987>의 추억은 정치적 표백을 거쳐 팬시상품으로 거듭난 진열장용 추억이 아닌 당시에 대한 온전한 기억이다. 이 많은 인물 중 대체 누굴 취하고 누굴 뺀단 말인가? 답은 '전원 탑승'이다. 인물을 전체 이야기를 작동시킬 부품이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캡슐로서 다루고 있다. 인물 저마다의 사연이라는 '개별'을, 내러티브라는 '전체'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침대에 맞추기 위해 사람의 발목을 자르는 어리석음). 그 시절의 청춘들이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던 인간의 체온이라는 핵심을 과장이나 손실 없이 포착해낸다.

- 한겨레 신문, 17.12.30. -

충만함인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치유 받는 개인들,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고자, 또는 현실적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군중, 그리고 스스로 잘났던 율법학자, 바리사이까지, 이 모든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전례에 참여하는, 수많은 나가 모인 우리들 모습입니다.

전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도 있고 처형당하는 강도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씨도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데는 그럴 이유가 있고, 그런 그는 그럼에도, 또는 그렇기에, 신앙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분하는 틀이 있습니다. 내가 진보라면, 내 친구, 내 아버지는 보수입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이 아닌 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를 뭉뚱그려 하나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려서, 엮어내어 만들어가는, 그럼에도, 또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소식

● 2018 교구 사제 서품식



성인호칭기도



안수식



새 사제들과 안명옥 주교
천주교마산교구

2018년 교구 사제 서품식이 1월 10일 오후 2시 성지여고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서품식에서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는 3명의 부제를 사제로 서품하였다. 이날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그리고 각 본당 신자들이 참석하여 새 사제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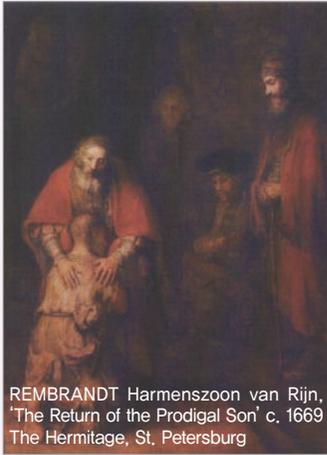
새 사제들의 첫 강복
천주교마산교구

새 사제 인사발령

사제명 (세례명)	허 기 원(마르첼리노)	부 임 지	가음동본당 보좌
	주 경 환(십자가의 요한)		사파동본당 2보좌
	정 재 덕(안토니오)		명서동본당 보좌



허기원 마르첼리노
(하대동본당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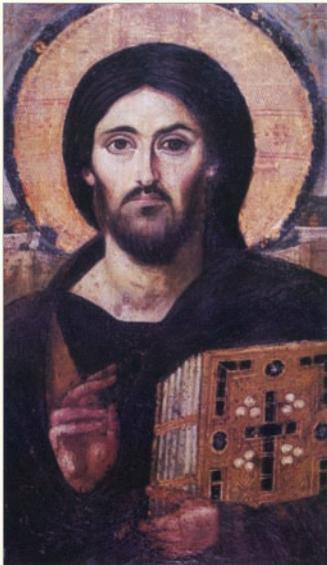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c. 1669, The Hermitage, St. Petersburg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5)**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는 한 인간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작은아들은 집과 아버지를 떠나지만,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될 때, 하느님 또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이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되돌아보면 이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지난 시간은 겸손해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저 주어졌고, 시련 또한 하느님을 바라보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제8편 5절의 말씀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을 노래합니다. 이 말씀 또한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아는 것이 겸손이며, 겸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기억해주시고 돌보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걷게 될 사제직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경환 십자가의 요한
(월명본당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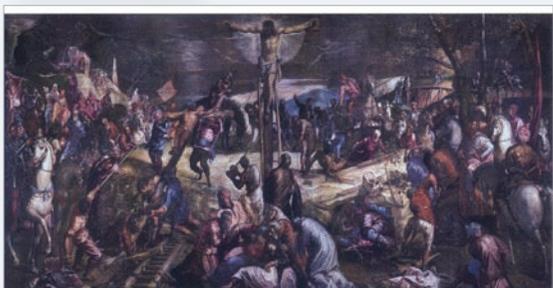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예수님께서서는 신적 권능을 지니고 계셨지만, 아버지의 말에 인간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며 고통 받는 이, 가난한 이, 아픈 이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구원의 영광과 은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시어 우리 곁에 머물러 계셨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몸소 일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고, 성부께 순종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도 사제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분의 기도와 감사 속에 저도 동행하며, 시작하는 사제의 삶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안토니오
(중앙동본당 출신)



Tintoretto, The Crucifixion, 1565, oil on canvas 518cm x 1,224cm, Scuola Grande di San Rocco, Venice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1베드 4,14)

오늘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제가 걸어가는 길 앞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닥칠 많은 고난과 모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제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닥칠 고난과 모욕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길임을, 그리스도의 참 행복을 누리는 역설적인 길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저를 비틀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제의 길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많은 분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교회에 필요한 사제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마산교구의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교구 신부님들과 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0차 청소년 성령세미나



박혁호 신부, 이동진 신부의 집전으로 파견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봉사자들

교구 젊은이성령쇄신봉사회(부회장 : 천동주 바실리오)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제10차 청소년 성령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령세미나에는 32명의 청소년이 참석하였으며, 청소년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 젊은이성령쇄신봉사회는 매년 젊은이 성령세미나

(연 2회)와 청소년 성령세미나(연 1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교구청 별관 지하에서 젊은이 성령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구 청년들을 위한 ‘제27차 젊은이 성령세미나’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8차 젊은이 성령세미나’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 될 예정이다.

● 교구 여성협의회 정기 총회



황병석 신부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여성협의회 총회가 임원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구 여성협의회(회장 : 심영선 루치아)는 1월 9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제44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황병석 파스칼 신부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한 후, 각 지구와 교구의 2017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및 2018년도 활동계획, 예산안 심의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협의회 새로운 회장으로

지난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심영선 루치아(월영본당) 회장의 인준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감사 2명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황병석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여성협의회 회원들이 본당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공동체를 잘 운영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우울증의 시대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우울증이 감기처럼 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다는 조사가 있다. 그리고 인구의 약 3%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지난 연말에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아이돌 가수가 우울증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없어서 생긴다.’라는 뉘앙스의 다소 생뚱맞은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울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울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아직까지 우울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유전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우울증은 강한 유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정한 비율로 후손에게 유전되는 유전병은 아니다. 중요한 정신사회적 요인은 소중한 것(사랑하는 대상, 삶의 목적이나 의미, 일, 건강 등의 상실, 살면서 겪게 되는 각종 생활 사건과 스트레스, 성격적 결함, 성장과정에서의 애정의 결핍 및 부정적 경험 등이다. 또, 우울증은 뇌 안의 신경전달물질(세로토닌, 도파

민 등) 및 호르몬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있다. 요컨대, 우울증은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어려운 심리적 환경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뇌 안의 비정상적인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울증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보건의료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가벼운 우울 증상에 대하여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관리법을 갖고 있는데, 이중 허브 차, 독서, 명상, 휴식, 삼림욕, 운동, 유머, 즐거운 생활, 취미 활동, 마사지, 음악 감상, 종교 생활 등이 좋은 효과가 있다는 자가 평가를 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에는 가족 등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고립, 격리되어 있으려 하는 환자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물론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절망감 및 무력감, 불면, 식욕저하 등이 심하거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는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뇌 안의 생물학적 이상을 시급히 교정시켜주어야 하고, 또 심리 환경적 문제의 개선과 왜곡된 부정적 인식의 교정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사회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삶의 향기 ”



우리 집에 오신 주님의 축복

박영숙 잔 다르크·구암동본당

남편과 나 그리고 두 딸, 네 식구 지지고 볶고 정신없이 지내던 공간엔 하느님의 축복이 그-득하다. 힘들었던 삶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 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상을 받은 것이다. 두 딸의 유아세례와 첫영성체. 그리고 남편도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고마운 사람. 20년 전, 주님께서 선택해주신 그 이후, 길다면 긴 시간 속에 얼마나 매달렸던가. 주님께서선 선뜻 손을 잡아주셨다. 성가정을 일구어 주신 분!

두 딸에게 초지일관, 밀어붙였던 신앙. 우리 아이들은 이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때의 그 믿음이 지금은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내 삶의 터를 구석구석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은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큰딸 마리아와 작은 딸 유스티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남편 미카

엘도 뒤에서 “내가 하느님 바라보는 마음이 꼴찌네...”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능청스러운 자상함까지 보였다. 비록 20여 평의 자그마한 아파트 공간일지라도 지금은 부러운 게 없다. 주님의 축복이 그-득히 쌓여 우리 가족은 흠뻑 젖어있으니 참 행복하다. 이 작은 집에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며 온전히 당신 곁에서 일상생활을 기쁘게 보내는 우리 가족은 아팠던 날, 시렸던 날, 무거운 짐을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니 그 사랑 넘쳐난다. 작고 보잘것없다고 가진 것 또한 없어도 주님께서 가리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우리 가족에 활짝 핀 축복의 꽃, 두 딸, 그리고 남편과 따뜻한 이웃과 나누며 주님께 봉헌하는 일상이 되기를... 이쁜 두 딸도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새기며 봉헌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감히 약속드려본다.

“부모 자격 고시?”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1976년도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즈음에 네 가구가 함께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머구리’ 총각 두 명이 살았고, 남편과 사별하고 내 또래 아들 둘을 혼자 키우며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딸 넷에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막내아들을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보려고 아이를 낳다 보니 딸을 많이 낳게 된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 많은 집 살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리를 약간 저는 어머니가 생선을 함지에 이고 다니며 팔아서 먹고살았는데, 가장인 남편은 하릴없이 빈둥대며 낫술에 취해 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풀리는 일이 없으니 가정에서 폭력을 자주 행사했습니다(돌아보면 그 당시는 나라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가 없어서인지 이런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매우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팠을 겁니다. 이즈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너

살쯤 된 넷째가 두어 살 더 많은 언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언니야, 우리도 아빠 없어도 좋겠다. 그럼요 우리도 밀가루 타 묵을 거 아이가!”

그때는 복지라는 말이 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집에 밀가루 한 부대씩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바로 옆집에서 밀가루 타 먹는 것을 본 아이에게,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보다는 밀가루 한 부대가 더 절실했겠죠. 밀가루 한 부대보다 못한 아버지…

얼마 전 광주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엄마의 실수로 담뱃불에 불이 나서 3남매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들은 4살, 2살, 15개월이었습니다. 엄마는 22살입니다. 고3 때 한 살 어린 남편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았고 셋째를 낳은 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뚜렷한 직업은 없었고, 불이 난 그날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담뱃불을 붙이고 잠이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도 어리석은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엄마가 아이 셋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엄마의 집안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하고 맙니다. 과연 이 일이 비난만으로 끝날 일일까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낳은 아이는 누가 키워 줍니까?

아이들의 죽음에는 엄마에게 가장 큰 잘못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사회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십여 년 전 아버지보다 밀가루가 더 먹고 싶었던 그 아이에게, 광주에서 죽어간 3남매에게 부모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밀가루 한 부대보다 나은 부모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 자격 고시’라도 있어야 할까요? 또 나는, 우리 신부들은 사목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3남매를 위해 기도드리다 보니 착잡한 심정에 말이 많아집니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출애굽기 15장 6절)

평화를 빕니다.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맞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선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올해의 기도 초안을 작성한 카리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일치의 길을 위하여 종종 공통된 고통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에 근본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정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파스카(유월절)의 신비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해방 또는 구원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뤄 나가 시는데 인간을 주체로 참여시키십니다.

2018년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한 카리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식민지의 착취 속에서 고통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성경을 전해 준 사람들을 피정복민을 노예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한 반면, 노예가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서어 자유로 이끄시리라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주제에는 자유를 주신 주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카리브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카리브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자유의 노래가 있고, 이 노래는 1981년 성가로 작곡되어 교회 일치 운동의 ‘찬가’가 되었습니다. 카리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해 제시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투쟁과 경험만을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닐 것입니다. 빈곤, 폭력, 불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인간 존엄을 일그러뜨리는 문제들에서 기인한 집단정신의 낮은 자존감은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리브의 그리스도인들은 식민 지배의 틀은 벗어났지만, 옛 시대가 남겨 놓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온 세상에 만연해 있으며,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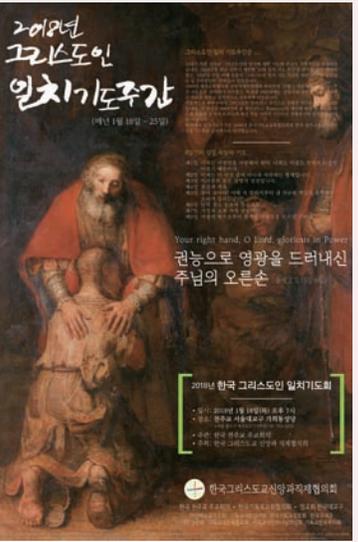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친 주님의 구원의 경험이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동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고통의 현실을 극복해 낼 힘과 행동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이맘때의 우리도 성서적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마련된 법과 양심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사람도, 산천초목도 제 역할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데 감춰진 것을 드러내셨고, 시민들은 ‘진실은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동의 신념을 외쳤고, 행동함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이념은 편을 갈라놓았지만, 정의에 대한 신뢰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지배자를 대변하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복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복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아닌 복음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와 개신교로 양분된 듯합니다. 분단을 만들어 낸 이념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간 일치를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함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 1월 18일
- 한국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목사
-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기학 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 한국기독교장로회 윤세관 목사
- 한국기독교 김필수 사령관
- 대한성공회 박동신 주교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양호 목사
- 기독교대한하나님성회 김서호 목사
- 기독교한국루터회 진영석 목사

교회의 삶에서 보는 초기 일치 공의회들(4~5세기) 7

에페소 공의회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격렬했던 에페소 공의회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키릴루스 총대주교는 자신의 경쟁상대인 네스토리우스를 이번에는야말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에페소에 도착했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키릴루스는 자신의 주교좌를 위협하거나 자신의 교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리쳐 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집트의 주교 50명을 대동했다. 그리고 엄청난 뇌물도 함께 가지고 왔다. 교회가 키릴루스를 비록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다 거룩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에페소 공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날짜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주교들이 에페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황제 사절단과 약 60명의 주교들이 공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연기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공의회 개최를 반대했다. 그러나 키릴루스는 에페소 공의회를 개최했다(431년).

에페소 공의회에 참석한 200명의 주교들은 네스토리우스를 가리켜 '새로운 유다' '이단자'라고 비난하면서 단죄했다. 그러자 군중들은 기뻐하면서 횃불을 들고 주교들의 숙소까지 행진했다. 순박한 민중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단자를 물리쳐 주셨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에페소에 도착한 네스토리우스의 지지자들은 대립 공의회를 개최하여 키릴루스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키릴루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단죄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자, 황제의 사절단은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를 동시에 면직시켰다. 그러나 키릴루스는 몰래 에페소를 빠져나와 승리자처럼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유배지에서 여생을 보냈다.

에페소 공의회가 결정한 교의 내용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에페소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내린 결정이란 고작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단죄뿐이었다. 사실 에페소 공의회가 한 일은 니케아 공의회의 정통성을 재천명한 것과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강조한 것뿐이다. 에페소 공의회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테오토코스¹ 칭호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인정했다. 한편, 키릴루스를 반대했던 안티오키아의 요한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화해하기 위해 '일치와 화해 신조'를 제안했다(433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본성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이 일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를 테오토코스라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육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키릴루스는 요한이 제시한 '일치와 화해 신조'에 대해 열렬히 환영했다. 로마의 식스투스 3세 교황은 두 사람의 화해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433년의 일치 신조'를 승인했다.

1. 테오토코스 :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강경규 안드레아 • 시인

주님! 눈 뜨고 낮에 갔던 그 길이 오는 길도 잘 보이게 하소서.

깜깜한 그믐밤 어둠길이면 달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동행할 누구 없으면 함께 걷게 하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제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를 못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제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한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저에게 성령으로 오시어 보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 들리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소서. 낮인데도 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밤이지만 볼 수(식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를 성령 안에서 밝게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 안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소서.

저희 눈으로 보는 피조물들을 통하여 참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오시는 주님을 저희가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 늘 찾게 하소서.

늘 시간 속에 계신 당신께서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마음 쓰시옵고 그 종락 무엇이기에 생각해주시나이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지나가는 것들. 달리는 차창 밖 묶어놓지 못한 그림들같이

위에서 흐르는 물 채우지 못하고 다시 흘러보내야 하는 그것들을 이제야 찾아다니나이다. 긴 잠에서 깨어나 뭐가 그렇게도 급한지 숨털 새순 옷을 벗어놓고 작은 녹색 잎으로 피웠다. 가 저의 영혼 앞을 순간에 스친 가을을 입고 달립니다.

요즈음 저는 썩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요양병원, 사회복지회관으로 지난 봄날에 피우지 못한 꽃. 가을 자락을 잡고 물들이며... 이곳저곳 음악 연주 봉사자로 라이브 공연으로. 앞산 메아리처럼 저를 따르는 저의 그림자처럼 저의 뭇을 찾아다닙니다. 주님으로 물들인 옷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는 인생은 큰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하여 많은 찌든 에너지(힘)를 양면(두 얼굴)으로 뿌리고... 칼날로 서는 파도 속을 지나갈 때도 고요한 평화의 예수님을 손안에 쥐고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고기(물질적)로 눈먼 믿음을, 불사불멸의 영원한 사랑의 믿음으로 소리쳐 저를 깨우십니다.

큰 꽃 한 송이 피우기보다 작은 꽃으로 많이 피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서도록 하십니다.

하룻밤 잠시 신세 지고 가는 나그네 같은 삶.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통공과 봉사로 묶어 놓아봅니다.

교구 청년성서모임 40차 탈출기 연수(3박 4일)

일시 : 1. 25.(목) 15:30~28.(주일) 16:00
 장소 : 산청 성심원
 내용 : 청년성서 탈출기 연수
 강사 : 김정우 라파엘 신부
 대상 : 탈출기 그룹 공부를 마치고 노트
 검사에 합격한 청년
 참가비 : 10만 원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목주, 성경, 필기구
 문의 : 대표 봉사자 010-3156-6993
 ※ 파견미사 초대 1. 28.(주일) 14:00

명례 복음화 학교 개강

그동안 쉬었던 복음화 학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시 : 3. 5.(월) 미사 - 10:30
 장소 : 명례성지
 문의 : 성지 사무실 055)391-1205
 담당 사제 010-3166-0773

WWME 50주년 기념 세계대회 참가 안내

행사일정 : 6. 22.(금)~24.(주일)
 장소 : 미국 시카고
 주요일정 : 1안 - 6. 17.(주일)~29.(금)
 12박 13일(미동부, 시카고, 미서부)
 2안 - 6. 17.(주일)~26.(화)
 9박 10일(미동부, 시카고)
 문의 : 김주호(요아킴), 조정선(안나)
 010-7744-1551, 010-2736-3496
 이메일 - chojs4418@korea.kr
 홈페이지 - "다음 포털"에서 "마산ME"로
 검색
 ※ 주의사항 : 본 대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ME
 가족분들은 대회 참가 일정에 따른 항공기
 예약 좌석수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조기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조속히 접수해주시시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전국 관리국장 회의 ◆

일정 : 1. 23.(화)
 장소 : CBCK

◆ 전국 사무처장 회의 ◆

일정 : 1. 24.(수)
 장소 : CBCK

교 구

■ 초임 사무장 연수

일시 : 1. 23.(화)~25.(목) 2박 3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사무처 055)249-7015~7,9

■ 교리교사 동계피정

일시 : 1. 27.(토)~28.(주일) 1박 2일
 장소 :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문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 수요일 14:00~17:30, 19:30~21:00
 장소 : 중동성당/ 대상 : 신자, 일반인
 내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 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
 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 중동본당 사무실 055)298-4657

기관·단체

■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안내

일시 : 1. 22.(월) 13:30
 장소 : 상평동성당
 문의 : 회장 010-9399-5454

■ 교구 전례 꽃꽂이회 신년미사

일시 : 1. 23.(화) 11:00
 장소 : 교구청 지하성당
 문의 : 담당자 010-4793-9859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일시 : 1. 27.(토) 14:00
 장소 : 마산웨딩그랜드
 문의 : 평협 055)249-7114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
 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이모임
 은 자조모임으로 일체의 회비는 없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9:00
 문의 : 010-9992-3443

■ 마산장애인복지관 적응훈련반 이용자 모집

시간 : 월~금 09:00~16:00
 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장애인(수시 모집)
 이용료 : 6만 원(수급권자 무료, 차상위계층 50%
 감면), 식대 4만 원
 내용 : 기본자립생활훈련(사회적응훈련,
 경제교육, 체육활동, 특별활동), 직업인
 식·탐색훈련(직무별 탐색, 직업인식교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2/18 3/11 성모님 발현지
 12박 13일 경비 : 375만원

3/20 이스라엘 이탈리아
 11박 12일 경비 : 448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라섹수술,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EX500엑시머레이저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밝은세상의 시작은 안경이야기에서...

안경이야기 마산 합성점

하드 RGP 콘택트, 누진 다초점 전문점
 마산회원구 3·15대로 747-1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 맞은편
 이기용 로마노, 이태란 요안나
 055)295-0888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 1588-5335

평과 밥상·사람과 세상·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우리농 직매장**

친환경 농산물·생활용품
 구매할 수 있는 마산교구
 1호 우리농 직매장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토 10:00~20:00
 주소 :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12
 (남양동 개나리 4차 아파트 앞 상가)
 전화 : 055)266-7010

육), 직무기능습득훈련(작업활동, 공과훈련), 취업알선(개인별 직무기능 및 특성에 맞는 업체 알선)

문의 : 직업지원팀 055)247-5195

기 타

■ **나자렛예수수녀회 일일 피정**

일시 : 상시/ 장소 : 수녀원 피정집
대상 : 남녀 개인 또는 단체 20명 내외
문의 : 피정 담당 010-4686-4903

■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 여대생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 02)741-3071, 010-9333-4532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 2. 2.~4./ 2. 6.~9./ 2. 23.~25./
3. 2.~4./ 3. 6.~9./ 3. 15.~17.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 064)796-9181

■ **2018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 : 2. 9.(금)까지(우편신청가능)

문의 :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 **지리산 피아골피정집 피정 안내**

1. **예비신자 및 새 신자 영성피정**
일시 : 2. 10.(토) 15:00~11.(주일) 13:00
대상 : 예비신자, 신자(영세 3년 미만)
2. **사순절 피정**
일시 : 2. 19.(월)~20.(화)/ 2. 22.(목)~23.(금)
2. 24.~25./ 3. 3.~4./ 3. 10.~11.(토~주일)
대상 : 누구나
문의 및 접수 : 061)782-5004,
www.piagol-732.net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3박4일 : 2. 22.(목)~25.(주일)/ 3. 15.(목)~18.(주일)
8박9일 : 2. 1.(목)~9.(금)/ 3. 1.(목)~9.(금)
첵년피정(35세 미만) : 1. 27.(토)~30.(화)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 031)953-6932, 010-4906-5722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 3월~12월(2월 예비학교 무료)
혜택 : 교육·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취업지원(최근5년평균취업률98.4%)
대상 : 만 15~30세 남자/ 문의 : 02)828-3600

■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2박 3일)**

일시 : 3. 16.~18./ 4. 20.~22./ 5. 18.~20./
6. 22.~24./ 9. 14.~16./ 10. 19.~21./
11. 16.~18./ 12. 14.~16.
(금) 14:00~(주일) 14:00
장소 :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피정비 : 15만 원
강의 : 유덕현 야고보 신부
문의 : 010-2816-1986

봉곡동본당 제21대 사목위원 개편

사목협의회장 : 최원준(안드레아)
남성부회장 : 서창호(아우구스티노)
여성부회장 : 이명숙(클라라)
총무 : 성기성(프란치스코)
기획관리분과위원장 : 이상수(대건 안드레아)
전례분과위원장 : 천선녀(미카엘라)
선교분과위원장 : 이정희(클라라)
교육·홍보분과위원장 : 김점숙(엘리사벳)
구역분과위원장 : 조도수(요세피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 최선호(베드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한금선(에말리아나)
시설관리분과위원장 : 최진규(바오로)
청소년분과위원장 : 이정호(빈첸시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 22.(월) 19:00	월남동성당	예수님의 멍에(마태 11,28-30)	이상욱(엘리아, 서울대교구)	이형수 몬시뇰(블라시오)	010-5247-9900
창원지구	1. 22.(월) 19:00	반송성당	응답받는 기도	김완식(요셉, 선교사)	이정근 신부(요한)	010-9969-5340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 28.(주일) 14:00	진해 중앙동성당	010-9409-0920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진해시니어클럽
자연습

천연비누판매
주문제조
비누만들기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540-0221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대추, 대추즙
대구 053)257-1771, 서울 02)2202-8392
공정(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주니어 음악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웰빙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Raphael Club
라파엘여행사

- ◆ 3/1 **이스라엘 9일** (359만원)
- ◆ 3/5 **이태리, 이스라엘 12일** (439만원-KE) (399만원-AZ)
- ◆ 3/5 **스페인, 포르투갈 13일** (299만원)
- ◆ 3/7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7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기원전 538년 이스라엘은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해방을 선포한 이는 키루스Cyrus 왕이다(2역대 36,23). 바빌로니아 멸망 직후였다.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라 했다(이사 45,1). 이방인으로 이렇게 칭송된 이는 이후 등장하지 않는다. 유대인 50년 포로생활을 끝내게 했기 때문이다. 1세대는 바빌론에서 대부분 죽었다. 귀향은 2세들이 주도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0km. 긴 여정이었다. 여러 이유로 포로지에 정착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키루스 임금 은 유대인 종교와 전통을 모두 인정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에서 뺏어왔던 성전 기물도 천개 이상 돌려줬다(에즈 1,9). 성전 재건에도 깊이 관여했다. 기초공사에 왕실 경비를 부담시킨 것이다(에즈 6,4). 바빌론 신전도 복구했으며 그들의 종교도 모두 인정했다. 속국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키루스는 티그리스 강변 메디아Media 출신이다. 지금의 이란 땅 북서쪽이다. 왕의 외손자로 태어났지만 쿠데타로 실권을 잡았다(BC 550년). 바빌로니아 정복을 끝내자 메디아를 합병해 새로운 나라를 선언했다. 페르시아 제국이다. 재위 20년 동안 이집트를 제외한 오리엔트 전 지역을 정복했고 중앙아시아 유목민과 전투 중 죽었다. 평생 전쟁터를 누빈 왕이다. 아들 캄비세스 2세가 뒤를 이었지만 얼마 못

키루스 임금



크세르크세스의 비문
이미지 출처 - 위키미디어

가 죽고 둘째 아들은 살해되었다.

혼란을 수습하고 왕위에 오른 이가 세 번째 임금 다리우스Darius다. 키루스 왕 사위였다. 제국을 안정시켰고 유대인에게 성전 재건의 은인이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복구에 매달렸지만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곤 했다. 다리우스는 법령을 내려 제도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이다(에즈 6,7). 기원전 519년이다. 바빌론에 남았던 유대인들의 로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왕실 문서고에서 키루스 칙령을 찾아내 왕에게 보여줬던 것이다(에즈 6,3).

다리우스 아들이 넷째 임금 크세르크세스Xerxes다. 다리우스와 키루스 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확실한 신분으로 준비된 왕이었지만 전쟁에 시달리다 측근의 반란으로 죽었다. 구약에 의하면 그의 왕비가 에스텔이며(에스 8,1) 유대인 축제 푸림절에 관여된 왕이다. 크세르크세스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즈 8,1). 키루스 증손자로 사제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파견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마무리했다. 키루스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왕이란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그렇게 불려도 손색없는 왕이었다. 속국의 모든 종교를 존중해 줬고 포로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고대사회에서 정복지 문화를 인정한다는 건 대단한 지혜였고 자신감이었다.

명례성지는 여러분의 희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명례성지는 오로지 회원님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신석복 마르코 복자의 생가터를 매입할 수 있었고, 지금 그 위에 순교자 기념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아래의 품목을 계속 기증받고 있습니다.

- 종류 : 건축(1구좌 5백만 원), 장궤틀 200석(1석 25만 원), 성당 음향기기, 성당 냉·난방기, 오르간, 전시관 냉·난방기, 전시관 집기, 안내센터 집기, 순례자의 집, 사제관, 수녀원

공사 중인 명례성지기념성당

☎ 문의 : 성지 사무실 055)391-1205, 담당 사제 010-3166-0773